

이재명 대표 체포안에 민주당 반란표...호남 민심 '술렁'

“제1야당 대표 꼭 구속만이 능사인가” 여론 비등

원내 지도부 총사퇴...비명 의원들 책임론 분출

새 원내대표 친명 우원식·김민석·남인순·홍익표 출사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과 함께 호남 민심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체포동의안 가결에 나선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에 대한 비판과 책임론이 분출하면서 당심에 올라탄 친명(친이재명)계의 ‘배신자 처단론’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호남에서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해 반드시 구속만이 능사인가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민주당의 권력 지형은 급격히 친명계로 기울고 있다. 우선 비명계인 박광온 원내대표와 송갑석 최고위원이 사퇴했다. 박 원내대표 등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해 막판까지 비명계 의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명계인 고민정 최고위원도 당 내외의 사퇴 압박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사퇴 의사를 표명했던 친명계의 조정식 사무총장 및 고위 당직자들은 이재명 대표가 사의를 반려했다. 또 26일 선출할 신입 원내대표에는 중진인 4선의 우원식 의원과 3선의 김민석·남인순·홍익표 의원 등 4명이 출마를 선언했다. 사실상 민주당 지도부가 모두 친명계로 채워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당 내에서는 친명계를 중심으로 체포동의안 가결 책임을 두고 비명계 의원들을 지목하며 원색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명계 의원들을 겨냥, “당 대표를 팔아먹었다. 명백한 해당행위 위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징계를 예고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동지 등에 칼을 꽂은 격”이라고 했으며, 서영교 최고위원은 “검찰 독재 윤석열 정권 의도에 우리당 의원들이 올라탔다”고 비명계를 공격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 강선 지지자 진영에선 팬카페 등을 통해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비명계에 사용하는 별칭)’을 공유하고 문자 폭탄을 가하며 반란표 싸움에 나섰다. 여기에 10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은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부결 표를 던졌으며 인증 릴레이를 나서 총선을 앞두고 ‘팬덤 정치’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전남지역 대다수의 의원들도 이 같은 대세에 순응하는 모습이다.

이처럼 비명계에 대한 원색적 비난이 이어지자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일부 초선의원들은 저녁 모임을 갖고 친명계의 공세가 과도하며 상당한 반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들이 체포동의안에 부결표를 던진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야당 탄압을 막기 위해서지 이재명 체제 지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도한 비명계 의원들은 일단 당원들의 반발에 숨을 죽이고 있다. 비명계라는 점에서 격렬한 후폭풍이 예상되는데 불구하고 가결표를 던진 것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해소만이 내년 총선 등 민주당의 미래를 담보할 방법이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26일 이뤄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민주당의 내전 양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제1야당 대표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된다면 당내의 극심한 내분이 더해지면서 자칫 분당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 체포동의안 가결 후 몸을 낮추고 있는 비명계는 지도부 총사퇴 및 비상대책위 전환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대 정당 사상 분당을 했을 경우, 거의 대부분 군소 정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당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주류 친명계는 ‘무죄 추정 원칙’을 앞세우며 ‘옥중공천’ 등을 토대로 이 대표 결사옹위 태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강선 지지층도 비명계에 ‘배신자’ 프레임 씌우고 맹공을 가하면서 민주당의 내분은 더욱 격화될 수 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이 대표는 현 지도 체제를 공고히 하며 내분 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데다 불구속 기소가 되더라도 사법리스크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이 대표가 통합에 방점을 찍고 비명계를 끌어안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하지만, 친명계가 예고한 대로 비명계 ‘찍어내기’가 가시화된다면 분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심장이자 과거 국민의당 바람을 통해 민주당 심판에도 나선 호남 민심은 민주당과 진보 진영 재편에 중심축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24일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대표 의료진 권고 따라 24일만에 단식 중단...“법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중단했다. 지난 31일 전면적인 국정 쇄신 및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지 24일만인 지난 23일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단식을 멈췄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단식투쟁 24일 차인 오늘부로 단식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회복 치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표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은 오늘 이 대표에게 즉각적인 단식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며 “더 이상의 단식은 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료진의 소견”이라고 전했다. 이어 “또한 어제 당무위는 단식 중단 요청을 의결했고 각계의 단식 중단 요청 역시 잇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특히 “당분간 현재 입원한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의료진과 협의해 법원 출석 등 일시적인 외부 일정을 소화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무기한 단식 선언 후 회복 전 앞에 설치한 천막에서 단식에 들어갔다.

단식 14일째에는 단식 농성장을 분청 안에 있는 당 대표실로 옮겼고, 19일째인 지난 18일 건강 악화로 국회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이후 이 대표는 중량구 녹색병원으로 옮겨 음식물 섭취 없이 수액만 투여받는 ‘병상 단식’을 닦새간 더 이어갔다. 그간 수많은 당 내외 인사들이 이 대표를 찾아 단식을 중단할 것을 설득해왔지만 이 대표는 단식 지속 의지를 고수했다.

지난 19일에는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서울을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 /오광록 기자 kroh@

낙선 대상 의원 명단 나돌고 민주 광주시당 항의전화 빗발

이재명 체포안 지역정가 뒤숭숭

일부 현역의원 ‘부결 투표’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광주·전남지역 일부 현역 의원들이 포함된 ‘총선 낙선 대상 의원 명단’이 나돌면서 현역 의원들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광주·전남지역 일부 의원들은 자신들의 페이스북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 ‘부결’에 투표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서는 등 해명에 진땀을 쏟고 있다.

24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광주시당 사무

실과 각 지역위원회 사무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른 당원들의 항의 전화와 비난이 빗발쳤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광주시당과 일부 지역위원회는 흡사나 모를 사태에 대비해 사무실을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강선 지지층은 지난 2월 첫 체포동의안 투표 때에 이어 이번에도 “다 같이 뭉쳐 ‘수박’을 청소하자”면서 “탈당은 체포동의안 찬성 의원들을 돕는 셈이니 더 열심히 활동하며 대가를 치르게 하자”고 충구를 겨눴다.

이런 가운데 비이재명계를 낮잡아 일컫는 ‘수박 의원’ 명단이 여러 버전으로 SNS 등을 타고 나돌고, 앞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에 서명한 31명의 의원 명단이 ‘체포 동의안 가결 찬성 의원’으

로 둔갑해 빠르게 퍼져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18명의 의원 가운데 비명계로 분류된 일부 의원들의 실명이 오르내리면서, 이들의 의원들은 페이스북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부결에 투표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의 A보좌관은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 대부분은 당 대표가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이익을 따지기 보다는 부결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가결 이후 일부가 모여 탄식과 울분을 참지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반면 일부 총선 출마예정자들이 이를 내년 총선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자칫 민주당 경선이 ‘혼탁’ ‘가짜 뉴스’ 등으로 왜곡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권민 기자 cki@

국민 공감 개헌, 광주시민 목소리 듣는다

내일 5·18문화센터서 공청회

광주시는 “26일 오후 2시 광주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와 함께 ‘국민 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민이 공감하고 실현할 수 있는 개

헌 방안을 모색하고 개헌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상시적이고 단계적인 절차를 도입하는 ‘개헌절차법’ 제정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개헌자문위원인 백준기 한신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임지봉 서강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개헌절차법 제정 등에 대해 발표

한다.

이재의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 전문위원, 조기선 광주 CBS 보도제작국 선임기자, 김병록 조선대 교수, 허완중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방군 조선평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 전문위원은 5·18 정신으로 대표되는 민주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필요성과 당위성을 함께 설명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헌정 포털 누리집(https://constitution.assembl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권민 기자 cki@

대통령실 ‘동네 혁신제품’ 공모...내달까지 접수

대통령실은 2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대국민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동네 혁신제품 아이디어’를 제안받는다. 24일 밝혔다. ‘혁신제품’은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여주는 혁신성도 뛰어난 제품으로, 조달청이 심의를 지원한다. 바닥형 보행신호등, 스마트 소화기 등이 대표적

인 혁신제품으로 선정됐었다. 공모 절차는 국민 제안, 제안 채택, 혁신제품 공모·지정, 혁신제품 보급 순으로 진행된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접수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생활 공감도, 공공성, 신규성 등을 평가해 우수 아이디어

를 선정한다. 이후 조달청과 협업을 통해 실제 제품화가 가능하도록 보완하고, 개발된 제품은 아이디어 제안자가 거주하는 동네에 우선 보급되도록 정부가 첫 구매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그간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왔으나 제도 개선에 국한되다 보니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사장될 수밖에 없었다”며 “참신한 제안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방식을 넓혀나가는 취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3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GMAF

매칭페어

1. 실감미디어 기업 × 참여자 네트워킹 (기업별 10인 모집)

모집기간	2023.09.20.(수) ~ 10.5.(목) 18:00까지
참여기업	1. (주)글리제 (실감미디어) : 미디어유비 미디어아트 기술을 통한 공간 조성 2. 주식회사호영XR (AR/VR) : 가상공간 투어 교육문화 콘텐츠 제작 및 설치 3. 다오라월드 (메타버스) : 제때도 끊김 없는 광주실감미디어
장 소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GMAP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차로 338번길 10)
행사일정	1회차 10/12 13:00 ~ 16:00 주식회사 호영엑스알 AR/VR (주) 글리제 실감미디어 2회차 10/13 13:00 ~ 16:00 다오라 월드 메타버스
결과발표	2023.10.7.(토)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공식홈페이지(www.gmap.gwangju.go.kr)
참여방법	참가신청서 이메일 접수 (artmo2mo@gmail.com) *2023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공식홈페이지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홈페이지바로가기

2. 실감미디어 기업 × 참여자 매칭 (기업별 1인 모집)

선발기준	네트워킹 참여자 중 기업별 1인을 선정하여 기업프로젝트에 매칭
결과발표	2023.10.18.(수)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공식홈페이지(www.gmap.gwangju.go.kr)

3. 매칭 프로젝트 성과공유회

일 시	2023.11.24.(금) 13:00 ~ 16:00
참 여	(주)글리제, 주식회사호영XR, 다오라월드, 매칭프로젝트 선정자 3인
장 소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GMAP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차로 338번길 10)
기타문의	2023 GMAF 매칭페어 사업단(T. 070-7766-7668)

